

2011년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시 | 2011. 4. 29 (금) 13: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차례

주제발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토론.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3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8

문혁준(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42

나종혜(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50



주제발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 문제제기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 우리사회는 혼인연령의 상승과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10), 초산연령이 높아져 30.09세에 첫아이를 출산하며, 가임여성 일인당 출산율은 1.22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급속한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만혼 현상, 가정주부에서 취업여성으로의 역할 변화, 무엇보다도 높은 교육열에서 야기된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다 지출 등이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증가하는 취업 여성들로 인해 남편과 공동으로 의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가정 내의 역할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Lee & Seo, 2007).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은 어머니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통념이라 여성, 즉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실제적으로 더 가중된다고 하겠다. 특히, 보육비와 양육 부담으로 야기되는 실질적인 양육비용의 증가는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완

충되거나 배려를 받을 때, 자녀에 대한 후속 출산 의도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아동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제 특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언급이 중심이 될 것이다.

올해 제 2차 5개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속도를 늦추고 후속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취업모의 지원에 관한 고민은 있어 왔으나, 비취업모에 관한 정책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어 비취업모에 대한 지원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후속 출산 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육아지원 정책의 기초와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1. 취업모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비취업모 집단에서의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자녀는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됨의 긍정적인 경험 외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유 시간을 갖는 것조차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Crnic과 Low(2002)는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부모됨의 요구에 대한 적대적인 심리적 반응과 자녀를 대하는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앞서 논했듯이, 현대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여성 취업의 증가와 핵가족화는 부모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이나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숙재, 1997; Abidin, 1992; Belsky, 1984).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부모특성 요인, 아동특성 요인, 가족차원 요인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 관점(Crnic & Low, 2002)과 어머니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과 사회적 지원과 지원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Belsky, 1984; Reis, Barbera·Stein, & Bennett, 1986)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가구 총소득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일관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학력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양육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김기현, 2000, 재인용)는 연구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기현·조복희, 2000) 등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 가구의 총소득과 양육스트레스도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처인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문자·이미리, 2000).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련해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백영숙, 2007;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다 높다는 결과(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 1999)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 전춘애·박성연, 1996).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주요 변인으로 본다. 우울 수준은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심리적 건강의 주요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Belsky, 1984; Reis, Barbera·Stein, & Bennett, 1986). 우울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나이가 어린 여성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할 때 우울해지기 쉽다고 한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하고 지각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점과 이해 수준이 달라지며, 이러한 관점과 이해수준은 양육 태도와 양육 실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더하게 되지만, 약할 경우는 쉽게 문제 상황을 포기한다고 한다(Bandura, 1977). 자녀양육 과정이 부모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우울 수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셋째, 부부관계도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남편의 양육 참여가 관심 있는 주제가 되어 왔는데,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는 연구(이수미, 2005; 이윤선, 2008)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김관주, 2008; 오은경, 2001)는 연구가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전춘애·박성연, 19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남편의 양육 참여를 다른 연구들은 남편의 양육 참여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고 하기(이용이, 2007)도 하지만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강희경·조복희, 1999).

한편 결혼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전춘애·박성연, 1996; 최승애, 2006)와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가 있다(김혜진, 2005). 또 다른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기보다는 부부 갈등이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안재진, 2010; Abidin, 1990; Belsky, 1984).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박지원, 1989)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등의 정서적 지원,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지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여가활동의 시간을 갖는 여가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 및 가족지원 정책 이용 여부와 만족도(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0)는 여성의 출산 휴가, 대체인력풀 운영, 보육비 지원, 여성의 육아 휴직, 수유실 설치, 근무 중 수유시간부여 또는 유급수유시간, 시차출근제, 남성의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취업모를 중심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출산휴가와 여성의 육아휴직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0).

후속 출산 의도는 출산을 위한 심리적인 의지가 있음을 의미하나,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및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현실적인 조건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실제로 출산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출산을 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인구학적 변인(공선영, 2006), 가족,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지원 정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이정원, 2007) 등을 고찰할 것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 2009년 2차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평균 14개월 영아를 가진 어머니 1,904명의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비취업모가 1,287명, 취업모가 600명으로 나타나, 비취업모가 취업모의 2배가 조금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비취업모 중 600명을 무선 표집으로 추출한 후, 취업모 600명을 포함한 총 1,2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이외에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중 진술이 명확치 않은 문장과 영아 어머니에게 적절치 않은 문장을 제외하였다. 총 10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5이었다.

나.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최종학력,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사용하였다.

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1)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사용된 'Perlin-Self-Efficacy Scale'을 신나리 외(200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2)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국내 연구에서 많이 쓰인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한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40점이다. 척도 중 일부는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 하였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다.

3)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 와 Zaslavsky(2002)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외(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총 6개 문항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91이었다.

라. 부부관계

1)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 문항은 강희경(1998)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5~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2) 결혼 만족도

어머니 대상 질문지 중 Schumm 등(1983)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Chung(2004)이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한 Revised-KMSS를 어머니가 응답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중에서 평정하는 척도이며 총 4개 문항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92이었다.

3)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4)이 Markman 외(2001)의 부부 갈등 척도를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중에서 평정하는 척도이다.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이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91이었다.

마. 사회적 지원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중 하나를 사회적 지원이라고 보고, 이 재립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여가적 지원의 네 가지 요인,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60점이다.

바. 후속 출산계획, 육아지원 정책사용 여부

1) 후속 출산계획

어머니의 질문 내용 중 후속 출산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기타'로 응답한 내용 중 '낳겠음'과 '안 낳겠음'을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직장육아정책 제도 시행과 사용 여부

육아 및 가족지원 정책으로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수유실 설치, 유급수유시간,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운영, 남성의 출산휴가, 남성의 육아휴직 등 직장관련 육아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시행여부와 이용여부를 합산하였다.

사. 직무 만족도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본 도구는 요인별 직무 만족도와 전반적 직무 만족도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별 직무 만족도는 미네소타대학교 직업심리연구소의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과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한 항목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직무 만족도만 사용하였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 간의 후속 출산 의도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t-검증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과 후속 출산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과 후속 출산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가. 어머니 연령

본 연구의 전체 분석 대상인 1,200명의 어머니 자료 및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으로 구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머니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에 관하여 기술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 <표 3>,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취업모, 비취업모 및 전체 집단에서 30대가 72.5~7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20.5~25.0%, 40대는 2.5%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이 비취업모에 비해 3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2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낮았다. 그러나 전체 어머니 평균 연령은 약 32세 정도로 각 집단에서 거의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어머니 연령은 2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전체 참여자의 연령 분포와 거의 유사하였다(표 2 참조).

<표 1> 어머니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전체	어머니 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연령	20대	273 (22.8)	123 (20.5)	150 (25.0)
	30대	897 (74.8)	462 (77.0)	435 (72.5)
	40대	30 (2.5)	15 (2.5)	15 (2.5)
	계	1200 (100.0)	600 (100.0)	600 (100.0)
평균 (만 연령)		32.19	32.23	32.14
표준편차		3.68	3.48	3.88
범위		20 - 46	21 - 43	20 - 46

<표 2> 2차년도 참여 어머니 연령

단위: 만 연령

어머니 취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모	600	32.23	3.48	21	43
비취업모	1287	32.13	3.79	20	47
전체	1904	32.15	3.69	20	47

나. 어머니 학력

본 연구의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취업모의 경우 46.9%,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3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 23.7%, 고등학교 졸업이 19%순으로 나타났던 반면, 비취업모는 고등학교 졸업이 34.4%, 전문대 졸업이 24.6%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취업모 10.3%, 비취업모 3%로 취업모의 학력이 비취업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학력($\chi^2 = 58.68,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학력

단위: 명 (%)

구분	전체	어머니 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중학교 졸업 이하	5 (0.4)	1 (0.2)	4 (0.7)
고등학교 졸업	319 (26.7)	113 (19.0)	206 (34.4)
전문대 졸업	288 (24.1)	141 (23.7)	147 (24.6)
대학교 졸업	502 (42.1)	279 (46.9)	223 (37.3)
대학원 졸업	79 (6.6)	61 (10.3)	18 (3.0)
계	1193 (100.0)	595 (100.0)	598 (100.0)

다. 가구 소득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취업모의 경우 301~400만원이 24.1%, 201~300만원이 23.3%, 401~500만원은 23.3%순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의 경우 201~300만원이 35.8%, 101~200만원이 30%, 301~400만원은 16.5%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정의 평균 가구 소득은 518만원, 중위값은 400만원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 가정의 평균 가구 소득은 365만원, 중위값은 251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정이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가구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가구 소득($t = 4.0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 4> 가구 소득

단위: 만원, 명 (%)

소득	전체	어머니 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100만원 이하	27 (2.3)	5 (0.8)	225 (3.7)
101~200만원	236 (19.7)	56 (9.4)	180 (30.0)
201~300만원	354 (29.6)	139 (23.3)	215 (35.8)
301~400만원	243 (20.3)	144 (24.1)	99 (16.5)
401~500만원	176 (14.7)	135 (22.6)	41 (6.8)
501~600만원	58 (4.8)	47 (7.9)	11 (1.8)
601~700만원	36 (3.0)	28 (4.7)	8 (1.3)
701~800만원	16 (1.3)	13 (2.2)	3 (0.5)
801~900만원	-	-	-
901~1000만원	10 (0.8)	10 (1.7)	-
1001만원 이상	41 (3.4)	20 (3.4)	21 (3.5)
계	1197 (100.0)	597 (100.0)	600 (100.0)
평균 (만원)	441.14	517.72	364.69
표준편차	660.40	766.85	522.93
중위값	300.00	400.00	250.50
범위	60.0 - 9000.0	100.0 - 9000.0	60.0 - 6000.0

2.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어머니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 보기 위해, 먼저 어머니 후속 출산 의도에 관하여 어머니 집단 별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서 취업모의 경우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1.0%,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7%순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의 경우도 동일한 순으로 34.1%, 57.8%, 7.9%였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좀 더 적었고,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어머니 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낳겠음 (또는 임신 중)	409 (34.5)	207 (35.0)	202 (34.1)
낳지 않겠음	644 (54.4)	302 (51.0)	342 (57.8)
잘 모르겠음	128 (10.8)	81 (13.7)	47 (7.9)
기타 (이혼 등)	3 (0.3)	2 (0.3)	1 (0.2)
계	1184 (100.0)	592 (100.0)	592 (100.0)

<표 6> 1, 2차년도 참여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어머니 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1차년도	낳겠음 (또는 임신 중)	577 (27.8)	188 (30.1)	389 (26.8)
	낳지 않겠음	1046 (50.4)	310 (49.7)	736 (50.7)
	잘 모르겠음	451 (21.7)	126 (20.2)	325 (22.4)
	기타 (이혼 등)	3 (0.1)	-	3 (0.2)
	계	2077 (100.0)	624 (100.0)	1453 (100.0)
2차년도	낳겠음 (또는 임신 중)	658 (35.1)	207 (35.0)	444 (35.0)
	낳지 않겠음	1018 (54.2)	302 (51.0)	709 (55.8)
	잘 모르겠음	198 (10.5)	81 (13.7)	116 (9.1)
	기타 (이혼 등)	3 (0.2)	2 (0.3)	1 (0.1)
	계	1877 (100.0)	592(100.0)	1270 (100.0)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5점 척도로 구성된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평균 점수는 취업모 집단이 2.65점, 비취업모 집단은 2.79점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참여 대상 전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2.74점에서 2차년도의 2.73점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비취업모 전체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취업모 전체 집단의 경우 2.68점에서 2.65점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모	595	2.65	0.62	1.00	4.90
비취업모	590	2.79	0.66	1.00	5.00
전체	1185	2.72	0.64	1.00	5.00

<표 8> 1, 2차년도 참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차년도	취업모	532	2.68	0.63	1.00	4.70
	비취업모	1317	2.77	0.61	1.00	4.70
	전체	1849	2.74	0.62	1.00	4.70
2차년도	취업모	595	2.65	0.62	1.00	4.90
	비취업모	1275	2.77	0.64	1.00	5.00
	전체	1887	2.73	0.64	1.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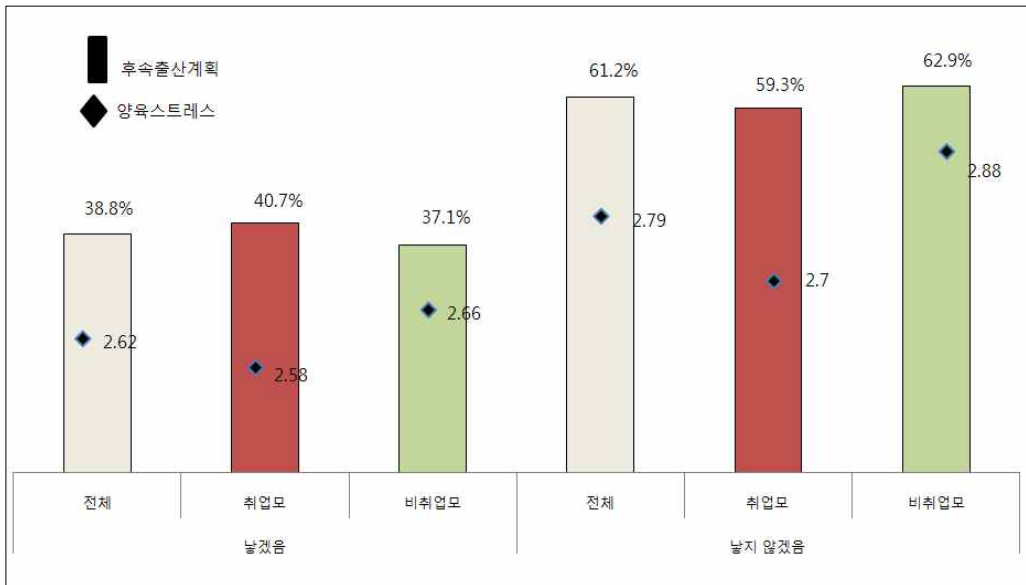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후속 출산 의도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기타 값을 제외한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후속 출산 의도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그림 1참조).

상술하면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없다'는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는 취업모($t = -2.11, p < .05$), 비취업모($t = -3.69, p < .001$), 전체집단($t = -4.23, p < .001$)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속 출산 의도가 있는 모든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표 9>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취업모	낳겠음	207	2.58	0.63	-2.11*
	낳지 않겠음	299	2.70	0.62	
비취업모	낳겠음	200	2.66	0.67	-3.69***
	낳지 않겠음	334	2.88	0.65	
전체	낳겠음	407	2.62	0.65	-4.23***
	낳지 않겠음	633	2.79	0.64	

* $p < .05$. *** $p < .001$.



[그림 1]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와 양육스트레스

3.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들을 인구학적인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인 특성별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집단별로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본

후, 분석에 투입되었던 모든 변인들 중에서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학적인 변인 중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연령, 학력, 가구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합한 전체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beta = -.092, p < .01$)와 어머니의 최종학력($\beta = -.087, p < .001$)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집단의 경우, 어머니 연령, 학력, 가구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 변인 모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의 연령이나 최종학력, 가구소득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집단의 경우, 어머니 연령, 학력, 가구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최종학력($\beta = -.105, p < .05$)만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심리적 특성 변인 중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집단별로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우울($\beta = -.276, p < .001$), 자아존중감($\beta = -.198, p < .001$), 자기효능감($\beta = -.249, p < .001$)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높았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높았다.

세 번째로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 변인으로 결혼 만족도와 부부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집단 별로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서 결혼 만족도($\beta = -.112, p < .01$), 부부 갈등($\beta = .354, p < .001$)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들의 결혼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부부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높았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beta = -.248, p < .001$), 취업모($\beta = -.196, p < .001$)와 비취업모($\beta = -.285, p < .001$) 집단 모두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지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beta = -.175, p < .001$), 취업모($\beta = -.177, p < .05$)와 비취업모($\beta = -.183, p < .01$)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의지하거나 함께 걱정해주는 등,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여섯 번째로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육아지원 정책 관련 변인으로, 취업모의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총 개수,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이용 횟수 및 이용하였던 육아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정책 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운영의 제도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낮았다.

<표 10>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전체(n=1200)		어머니 취업			
			취업모(n=600)		비취업모(n=600)	
	B	β	B	β	B	β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연령	-.007	-.038	-.009	-.049	-.005	-.027
어머니의 최종 학력	-.059	-.087**	-.044	-.067	-.075	-.105*
어머니의 취업 여부	-.117	-.092**				
월 평균 가구 소득	-3.224E-5	-.034	-1.697E-5	-.021	-7.004E-5	-.056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우울	.043	.276***	.039	.253***	.047	.300***
자기효능감	-.384	-.249***	-.167	-.179***	-.327	-.212***
자아존중감	-.186	-.198***	-.416	-.268***	-.210	-.221***
부부관계의 질						
모_결혼 만족도	-.090	-.112**	-.084	-.105*	-.091	-.113*
모_부부 갈등	.294	.354***	.270	.322***	.316	.388***
아버지의 양육 참여	-.179	-.248***	-.133	-.196***	-.215	-.285***
사회적 지원						
도구적 지원	-.062	-.069	-.101	-.115	-.023	-.025
사회적 지원	-.021	-.022	.020	.022	-.038	-.040
정보적 지원	-.051	-.058	.001	.001	-.106	-.119
정서적 지원	-.146	-.175***	-.143	-.177*	-.157	-.183**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지원 정책의 수			-.028	-.104		
이용 정책의 수			.063	.136		
이용 정책 만족도			-.106	-.139**		

주. 인구학적 변인 : 전체 $R^2 = .02$, 취업모 $R^2 = .00$, 비취업모 $R^2 = .01$
 어머니 심리적 특성 : 전체 $R^2 = .37$, 취업모 $R^2 = .34$, 비취업모 $R^2 = .38$
 부부관계의 질 : 전체 $R^2 = .19$, 취업모 $R^2 = .15$, 비취업모 $R^2 = .22$
 아버지의 양육 참여 : 전체 $R^2 = .06$, 취업모 $R^2 = .04$, 비취업모 $R^2 = .08$
 사회적 지원 : 전체 $R^2 = .08$, 취업모 $R^2 = .06$, 비취업모 $R^2 = .10$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 취업모 $R^2 = .03$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 중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할 수 변인들의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학적인 특성(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 소득),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부관계의 질(모_결혼 만족도, 모_부부 갈등), 아버지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도구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 서적 지원), 직장 내의 육아지원 정책(지원 정책의 수, 이용 정책의 수, 이용 정책 만족도)변인들과 직무 만족도 변인을 포함시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별로 단계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1>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1200)

전체	<i>B</i>	β	<i>R</i> ²	ΔR^2
1단계				
우울	.082	.521***	.27	
2단계				
우울	.055	.349***	.34	.07
자아존중감	-.480	-.310***		
3단계				
우울	.044	.277***	.36	.02
자아존중감	-.368	-.238***		
자기효능감	-.194	-.204***		
4단계				
우울	.038	.239***	.38	.02
자아존중감	-.340	-.220***		
자기효능감	-.163	-.171***		
모_부부 갈등	.115	.137***		
5단계				
우울	.037	.236***	.38	.00
자아존중감	-.339	-.219***		
자기효능감	-.161	-.170***		
모_부부 갈등	.096	.115***		
부_양육 참여	-.040	-.056*		

* $p < .05$. *** $p < .001$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합한 전체 집단의 경우, 위 변수 들 중 직장의 육아정책 지원 변인 및 직무 만족도 변인을 제외하고 투입된 13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우울 ($\beta = .521, p < .001$)이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약 2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7%($\beta = -.310, p < .001$), 자기효능감 2%($\beta = -.204, p < .001$),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 정도 2%($\beta = .137 < .001$), 아버지의 양육 참여 ($\beta = -.056 p < .05$)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섯 가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총 38%정도로 나타났다.

<표 12> 취업모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600)

취업모	B	β	R ²	ΔR^2
1단계				
우울	.072	.454***	.21	
2단계				
우울	.059	.373***	.28	.07
모_결혼 만족도	-.229	-.274***		
3단계				
우울	.043	.273***	.32	.04
모_결혼 만족도	-.194	-.233***		
자아존중감	-.385	.232***		
4단계				
우울	.037	.234***	.33	.01
모_결혼 만족도	-.133	-.159**		
자아존중감	-.364	-.220***		
모_부부 갈등	.141	.160**		
5단계				
우울	.031	.198***	.34	.01
모_결혼 만족도	-.123	-.147**		
자아존중감	-.317	-.191***		
모_부부 등등	.130	.148*		
자기효능감	-.111	-.111*		

* $p < .05$. ** $p < .01$, *** $p < .001$

취업모의 경우, 위 변수 모두를 투입된 17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약 21%($\beta = .454, p < .001$)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 만족도 7%($\beta = -.274, p < .001$), 자아존중감 4%($\beta = .232, p < .001$),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 정도 1%($\beta = .160, p < .01$), 자기효능감 1%($\beta = -.111, p < .05$)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섯 가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총 34%정도로 나타났다.

<표 13> 비취업모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600)

비취업모	<i>B</i>	<i>β</i>	<i>R</i> ²	ΔR^2
1단계				
우울	.086	.544 ^{***}	.30	
2단계				
우울	.060	.378 ^{***}	.36	.06
자기효능감	-.287	-.303 ^{***}		
3단계				
우울	.048	.305 ^{***}	.38	.02
자기효능감	-.216	-.228 ^{***}		
자아존중감	-.309	-.199 ^{***}		
4단계				
우울	.042	.265 ^{***}	.39	.01
자기효능감	-.176	-.186 ^{***}		
자아존중감	-.280	-.180 ^{***}		
모_부부 갈등	.120	.146 ^{**}		

p* < .01. **p* < .001

비취업모의 경우, 위 변수들 중 직장의 육아정책 지원 변인 및 직무 만족도 변인을 제외하고 투입된 13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우울이 30%($\beta = .544, p < .001$) 정도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6%($\beta = -.303, p < .001$), 자아존중감 2%($\beta = -.199, p < .001$),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 정도의 1%($\beta = .146, p < .01$)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네 가지 변인들에 의해 양육스트레스가 설명되는 변량은 총 39% 정도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는 전체 대상 어머니,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 간의 후속 출산 의도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t-검증을 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과 후속 출산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과 후속 출산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변인, 직무 만족도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어머니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이 비취업모에 비해 30대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2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인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무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와 취업모 모두에게서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 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서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도 우울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인 부모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권정혜, 1997; 손승희·이윤선·배선영·한찬희·유정은·이민주·조항린, 2010),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성을 갖고 있을 경우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자녀를 더 어렵고 까다롭게 지각하므로,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는 연구 결과(Bigras, Lafreniere, & Dumas, 1996)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징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우울 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불안이나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보고

하고 있다(고성혜, 1994; Wierda-Boer, Gerris, & Vermulst, 2009).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여성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권정혜, 1997)고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 갈등은 설명력은 크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회귀분석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 갈등이 직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부 갈등이 적은 경우 결혼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되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후속 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는 출산계획이 없는 어머니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우울 수준이 더 낮을 뿐 아니라, 결혼만족도가 더 높고 부부 갈등이 더 적으며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더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송영주·이주옥·김춘경, 2010)와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손승희 외, 2010). 취업모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나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문혁준, 2004; Wierda-Boer, Gerris, & Vermulst, 2009)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이 비취업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정책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모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느끼거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 본 연구에서도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비취업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주요 변인으로 부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시, 어머니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시행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실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더해 어머니 자신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 위주의 부모 프로그램에서 한 발짝 나아가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과 안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후속 출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만족도와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서적 지원과 같은 요인들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진 및 부부관계 결속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 모색 및 확산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사는 현대의 가족 구조에서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및 아버지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 역할 재정립, 부부관계 증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확대, 보급하는 것이 후속 출산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한 세 집단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집단이 후속 출산계획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방법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각 집단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모색하려 하였고, 이러한 방안들이 궁극적으로는 후속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달리 접근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의 특성은 공통점도 있는 반면, 다소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 보

편적인 정책이나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점을 고려할 때,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취업모를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시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지원정책의 수혜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의 제공이 후속 출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직장 내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의 제공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출산을 타계하고 육아지원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실현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권정혜(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55-56.
- 김관주(2008). 발달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 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혜진(2006).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9).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승희·이윤선·배선영·한찬희·유정은·이민주·조항린(2010).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 연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63-682.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0).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 내 역할지각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99-220.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진(2010). 부의 양육 참여가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23-539.

- 오은경(2001).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 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수미(2005).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용이(2007).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선(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문자·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 3(2), 187-195.
- 최승애(2006).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요인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ras, M.,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th

- parent and child scal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2), 167-178.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243-267). Hillsdale, NJ: Erlbaum.
- Lee, S. E., & Seo, H. (2007).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8(4), 127-144.
- Forgays, D. K. Ottaway, S. A. Guarino, A., & D'Alessio, M. (2001). Parenting stress in employed and at-home mothes in Ital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27-351.
- Reis, J., Barbera·Stein, L., & Bennett, S. (1986).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35(4), 547-554.
- Wierda-Boer, H. H., Gerris, J. R. M., & Vermulst, A. (2009). Managing Multiple Roles: Personality, Stress, and work-family interference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0(1), 6-19.



토론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문혁준(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나종혜(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1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아동과 부모의 가치를 높이는 육아지원정책을 위하여]

1. 저출산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반응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과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내포하는 의미는 매우 위협적이다. “텅 빈 요람”의 저자 필립롱맨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50~100년 안에 불어 닥칠 폭풍을 예고한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투자와 부의 축적은 인적자원이 없는 텅 빈 요람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유럽에서는 193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출산정책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가족생활의 책임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여성의 취업률도 가장 높고, 출산율도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직접적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 문제를 젠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한 전기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도덕의 실종과 가족의 쇠퇴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가족을 강화하고 모성의 영예를 드높이며 부모에게 자녀를 잘 키우도록 하는 것은 조국의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중동에서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국가의 쇠망에 대한 염려로 인식되었다. 1995년 터키의 총리 에르바칸은 “적어도 4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 에르도안은 “피임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3·3·3운동, 즉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1980년대 등장한 한 자녀 갖기 운동,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2004년에는 급기야 “동생이 갖고 싶어요.”라고 바뀌었다.

2. 아이를 낳으면 부자로 살 수 없다?

요즘 부모들은 20년 전에 비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잠자는 시간을 더 적어졌다고 한다. 아이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부모와 사회 전반이 아이들의 개별적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압박과 자극을 받고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은 총 얼마일까. 2009년 기준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2억6천2백4만4천원¹⁾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보고서).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5억2천여 만원, 자녀 3명을 양육할 경우 7억8천여 만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이다. 미국의 농무부 통계는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 중산층 가정에서 2001년에 태어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직접비용 21만1370불(대학 진학 비용 미포함)과 기회비용 82만불(자녀양육을 선택함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비용²⁾)로 외동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비용을 10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비용이나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비용을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현실 앞에서 개인은 무기력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은 가치나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경제적 문제이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족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 쪽 배우자의 기회비용(자유시간과 사라진 수입의 모든 측면에서)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앤 크리텐턴은 “미국에서 빈곤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다.”고 꼬집고 있다.

우리 사회도 양육비용의 부담을 반영하는 유행어가 있다.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는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것이다. 자녀교육에 요구되는 경제적 비용은 부모의 경제 수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대를 잇는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양육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영아기 3년간의 양육비는 2천4백여 만원, 유아기 3년 양육비는 2천9백여 만원으로 산출됐다. 초등학교 6년 간 6천3백여 만원, 중학교 3년간 3천5백여 만원, 고등학교 3년간 4천1백여 만원이 들었다.
- 2)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자녀 출산 후, 부부 중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여, 아이가 5세 가 되었을 때 시간제 근무로 복구한다고 가정하였다.

3. 그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보람된 일

결혼과 출산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삶의 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많은 조사 자료들은 자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지적한다. 아동패널 보고서¹⁾에서도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은지 이상 자녀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57%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29.7%, 4명은 9.4%인 반면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다.

부모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로지 긍지와 기쁨으로 보상 받을 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됨을 기꺼이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이들이 결국 아이를 갖지 않거나 혹은 외동아기로 끝내고 마는 보다 보편적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이나 감정적으로 아이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다면 자녀양육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심리특성적 관점보다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개별 가정의 양육지원보다는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정 밖에서의 육아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 주제발표는 출산 및 양육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출산, 즉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첫 출산에 비해 둘째 이후의 출산은 보다 더 개인적 선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첫 자녀의 출산과 양육 경험이 자신의 삶에 기쁨과 보람을 주는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된다면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특성을 살피고, 이를 고려한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 본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는 육아지원정책 제안에 있어서 정책대상자의 요구에 눈높이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완을 하자면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직·간접경로를 분석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1)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103쪽

4. 아동과 부모의 가치를 높이는 육아지원정책

가족은 단순한 소비 단위가 아니라 인간자원 형성에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갖도록 동기화하고 지원하는 일은 핵심적인 인적자원을 창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가는 부모 역할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확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집세 부담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계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젊은 독신자들을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기생충 독신자”라고 까지 강하게 비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2세에게 투자할 여유도 동기도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정책은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관점에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듯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우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과 같은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취업모를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시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경험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직장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출산·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여성연구원을 위한 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2010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담당관 워크숍). 예를 들면 출산·육아휴직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근무기간의 실적으로 당해 연도 업적을 평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출산·육아기 승진·업적과 관련된 심사기간 연장(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연구원의 경우 평균등급 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출산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계획 표어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희망을 키우는 일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좀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가족생활을 보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계획하고 육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

미래는 아이들의 가치를 부모에게, 부모들의 가치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서로에게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2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이 후속 출산계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육아지원 정책의 제언과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이 원인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육아지원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검토함으로써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계획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을 논의하고, 나아가 앞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보다 유용한 육아지원정책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하여 활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 살펴 보고자한다.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후속 출산계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결과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여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경향은 1차년도, 즉 출산 직후에 측정된 결과와 동일한 것임을 보여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결과는 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값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를 포함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군은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고(전체: $R^2 = .36$, 취업모: $R^2 = .34$ 비취업모: $R^2 = .38$)그 다음으로는 설명력이 높은 요인군은 부부관계의 질(전체: $R^2 = .19$, 취업모: $R^2 = .15$ 비취업모: $R^2 = .22$)이었으며, 그 외 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등의 요인군은 10%미만의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핵심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관계의 질과 같은 심리적 환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를 둘러싼 정책이 매우 피상적인 문제에 한정 되어 있음을 잘 지적해 주는 연구 결과임을 잘 드러내준다.

2) 어머니의 후속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후속 출산 의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1차 년도에 이어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대했던 대로 1차년도 패널 데이터에 비해 2차년도에서 후속 출산계획을 지닌 어머니의 수가 다소 증가 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대부분 1차 년도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이 2차 년도에 출산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증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체 빈도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출산 의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표 9와 그림 1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요인들(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회적 지원,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등 앞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살펴본 요인들)과 이러한 후속 출산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출산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임을 밝히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되리라 본다.

2. 패널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패널데이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로서, 육아스트레스의 정점을 넘어선 어머니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육아와 관련한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아동패널데이터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점에 육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정책적 제안이나 육아의 사회적 관심을 둘러싼 아동패널데이터의 역할 이외에 아동패널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이해를 위한 패널데이터 활용

아동패널데이터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패널 연구의 내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보다 많은 연구들이 양육의 핵심에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중심이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 해소와 국가적 차원의 육아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동을 중심으로 정책이 풀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아동을 대표한 정책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2) 다양한 대상을 위한 패널데이터의 활용

아동패널연구진은 이 엄청난 패널데이터를 계획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우

수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렇게 소중한 패널데이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제시하는가에 있다. 다만 아동과 관련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현장 교사 및 활동가, 가정과 부모, 지역사회 등 아동과 관련한 독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널데이터를 적절히 분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3) 패널데이터의 비교 연구

아동패널데이터는 우리의 소중한 자료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 및 양육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유사 자료들을 탐색하여 국제적 자료 공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3

문혁준(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경제적인 부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여러 가정문제 등 현대의 부모는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부모로서 양육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효율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는 자녀의 반항적, 공격적 행동, 품행문제와 깊이와 연관되어 있다. 자녀의 문제는 그자체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부모역할을 어렵게 해서 자녀의 행동문제를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즉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역할의 붕괴, 그리고 자녀의 행동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죽음, 이혼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 사건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비해 사소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변화해오면서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바쁜 직장일과 사회 활동 등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관계에서 관계만이 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역할은 결여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거의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자녀양육 과정에서 파생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또한 어머니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녀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및 어머니가 처한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모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게 되며, 개인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외에 부모가 부부 관계에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힘

들어지며, 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혼자라고 느낀다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부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사례 1

2010년 5월 24일 SBS '긴급출동 SOS'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폭언을 일삼는 엄마의 정서적 학대에 가족들은 물론 이웃주민들까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가영(가명, 45)씨는 다섯 남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살배기 막내가 오줌 싸 것을 동기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사소한 이유에도 엄마의 욕설은 듣기 괴로울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아이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폭언에 대한 스트레스에 반응했다.

다섯 남매의 엄마인 김가영씨에게 다수의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기란 분명 고된 일이었다. 정돈된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집에는 세탁기도 없었고 일곱 식구의 빨래를 손수 빨아야 하는 것이 모두 김가영씨의 몫이었다. 이와 같은 양육스트레스가 김가영씨에게 폭언을 행사하게 만들었던 것. 하지만 남편 이정남(가명, 46)씨의 대응방식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었다. 아내의 폭언에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집을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급기야는 가출을 하는 것으로 상황을 회피했다. 알고 보니 남편의 가출은 습관적이었다. 이에 김가영씨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 비위 상하게 하거나 거처적 거린다거나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발로 차듯이" 라며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실제로 김가영씨의 폭언과 저주는 남편 이정남씨를 향한 때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때를 가리지 않는 김가영씨의 폭언과 고성에 이웃주민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한 주민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 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게다가 엄마와 아빠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며 생활하는 남매 역시 어느새 폭언과 폭력을 체화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대화는 방송 불가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방송 대부분 목음과 XX 자막표시가 주를 이뤘다. 엄마의 욕설과 폭언에 멍든 아이들은 남매끼리 서로 욕하고 때리는가 하면 엄마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퍼붓고는 "엄마한테 배웠다" 고 당당히 밝혀 충격을 안겼다.

사례 2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비정한 부부가 매일 밤 PC 방에서 즐긴 게임이 온라인상에서 소녀를 양육하는 내용을 담은 롤플레이팅게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자신의 딸보다 가상의 세계에 생성된 소녀 캐릭터에 더 집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가 신생아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한 김모(41·무직)씨 부부가 즐긴 게임은 '프리우스 온라인', 이 게임은 이용자가 기억을 잃어버린 '아니마' 라는 소녀 캐릭터와 함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다중온라인 롤플레이팅게임으로 지

난 2008년 10월부터 공개 서비스됐다. 특히 이용자들은 레벨 10 이상이 되면 '아니마' 캐릭터를 데리고 다니며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아이템샵 등을 통해 아니마 캐릭터에게 옷과 장신구를 사주거나 블로그에 육아일기를 쓰면서 딸처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 또한 게임 레벨이 높아 아니마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 소녀 캐릭터를 양육하고 있었다. 김씨 부부는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자 이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게임에 더욱 심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례 3

2010년 2월 8일 방송된 SBS '긴급출동 SOS24' 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을 도와달라는 이웃주민의 긴급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집에서는 어른 울음소리까지 함께 들려온다고 있었는데... 실제로 찾아간 그날 밤,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들을 매섭게 다그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 엄마는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날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어린 남매와 엄마는 서로를 챙기며 몹시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더욱 뜻밖의 사실은 남매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른 아님 아이들의 할머니라는 것.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이혼 후 연락이 끊겨버렸고 아빠는 현재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 때문에 할머니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의 양육을 떠맡게 된 것이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는 아이들을 몹시 살갑게 챙기다가도 어느 순간 무섭도록 돌변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할머니의 우울증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양육관련 몇 가지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부모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큐이디 부모학교에서는 지난 7월, 전국 1천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표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의 만 2~8세 자녀를 둔 월 평균 가구 소득 3백만원 이상의 남녀 1천 명(1:1).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 4:6 비율). 그 결과, 부모의 64.3%가 양육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왜 생긴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어머니는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지역적 편차도 거의 없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답한 이의 비율이 거의 90%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육아를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주부나 전업주부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본인이 젊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부모 지원형 교육 성향이 강할수록 어려움 정도에 대한 체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는 부부 간의 대화-나만의 취미 활동-여행-운동 순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등 방법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어머니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친구/지인과의 대화로만 집중되어 있었다. 양육 책임자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수다로만 푸는 것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전업주부나 맞벌이 주부나 차이가 없었다(어머니: 육아 스트레스를 수다로 푸는 59.7%; 부부 간의 대화 36.5%; 친구/지인과의 대화 23.2%; 나만의 취미 활동 16.9%; 여행 5.9%; 운동 5.7%; 쇼핑 5.3%; 부모와의 대화 2.2%; 기타 4.3%).

둘째, 여성가족부가 2011년 4월 24일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평균 2.3명으로 꼽았으며, 자녀 출산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39.5%)와 '교육비 부담'(23.3%)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출산·양육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조사에서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양육·교육비 부담'을 꼽은 비율이 14.4%였는데 비하면 교육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커졌다. 이밖에 기혼남녀들은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하다'(18.2%)와 '양육스트레스'(4.6%), '일의 방해'(2.6%),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1.2%), '맡길 사람이나 시설 부족(10.%) 등을 이유로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보육비용의 지원'(30.3%)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 지원'(25.2%),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14.6%)과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14.6%)이 뒤를 이었다.

부부관계에서는 여성의 발언권이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1차 조사에 비해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은 자녀교육 관련 문제(56.7%)와 주택구입 문제(77.2%), 투자 및 재산관리 문제(70.8%) 등에서 모두 높아졌다. 특히 대체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서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비율이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식사준비(80.9%)와 설거지(84.7%), 세탁(81.5%), 집안청소(86.6%) 등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622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 '직장스트레스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풀 때가 있거나 가끔 푸는'가 60.7%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30~4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은 경기불안과 조기퇴직 등의 불안함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표출시 가정의 불화 및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56.1%는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적 있다'고 했으며, '현재도 그렇다'가 15.2%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생활 때문에 배우자와 많이 다투는 이유는 '잡은 야근'이 32.7%로 가장 높았고, '피곤하다

며 퇴근 후 쉬기만 한다'가 28.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퇴근 후 쉬기만 한다'가 37.7%로 가장 높아, 배우자와 다투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가사분담 및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노동의 요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가 다른 근무형태의 간호사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 근무형태에 맞는 양질의 직장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이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병원 간호사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3%의 대상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출장 및 연수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항상 어렵다고 답한 간호사도 36.6%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교대 근무자가 출장 및 연수, 시간외 휴일 근무, 업무 집중 등에서 육아로 인해 유의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24시간 운영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섯째, 트렌드모니터(<http://trendmonitor.co.kr>)에서는 기혼남녀 1,200명에게 황혼육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제 3자에게 맡겨야 할 경우에는 아이의 외가에 맡기는 것이 안심인 된다는 응답(유자녀 응답자 61.2%, 무자녀 응답자 5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특성상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야 할 경우에도 육아도우미보다는 외가나 친가에서 돌봐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유자녀 응답자 84.3%, 무자녀 응답자 75.1%)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타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 지불할 자녀 육아 비용으로는 50만원(유자녀 응답자 23.1%, 무자녀 응답자 34.9%)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본인의 손주 양육 의향에 대해서도 유자녀 응답자의 39.5%, 무자녀 응답자의 39.4%만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결과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의존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으로 황혼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각 기업 및 기관이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켜 부모의 손으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고, 육아의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두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가족정책 인프라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에는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 운영 및 불평등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부증명방식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육아 참여 활성화제도 개선 방안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교육 ▲아버지 아카데미 모형 개발·보급 ▲학부모회 저녁 모임, 부자캠프 등 아버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보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 강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 마련으로 돌보미 자격 기준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보미 상시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취업부모 중심 지원 강화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이웃 간 돌봄 나눔 활성화와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역 돌봄지도 작성·보급 ▲엄마맘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놀토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한부모 가족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대상 및 금액 단계적 확대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소송 지원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주거 지원 전달체계 개선과 포털("위드맘(withmom)") 운영, 미혼모 반편견 교육을 통한 미혼모의 양육·자립 지원 강화 ▲부자가족 증가에 대응한 주거 지원 시설(부자공동생활시설 등) 확충 ▲법원과의 연계를 통한 이혼 전후 가족상담 활성화,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학업 지원(양육비, 검정고시 교육비용)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결혼사증 발급 요건 강화(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일 경우, 등록된 업체의 증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 발급, 가정폭력 및 상습 성범죄 전력자 등에 발급 제한)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상대국 협력 강화(2010.10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하여 국적 취득 전후의 고용보험 등 연계(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이중 언어 강사 양성 및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문화예술프로그램, 가족봉사단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 통합 지원을, 기타 다양한 취약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고령자 주거 안정법’ 제정을 통한 고령자 주거 안정 지원 ▲‘조손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학습·문화프로그램 지원) 운영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에 대한 가족보듬사업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전면 도입 및 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추진 및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인증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인증제 활성화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확대(매월 1회 → 매주 1회)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일·가정 양립 통계 개선 및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 개발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환경 조성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유해정보 발굴 및 특정고시 추진,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과정 이수제 도입 추진 등 청소년 성보호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 긴급전화 1366 24시간 Hot-line 운영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사업 근거 마련, 가족실태조사의 전국조사로써의 위상 제고(조사규모 확대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로 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완비 ▲건강가정사 재교육, 특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과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10년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족의 주관적 인식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부족과 가정 내 돌봄·가사노동 분담 부족으로 인한 가족 갈등, 저출산 지속 우려 등이 지적된 만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남성의 가족 내 역할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 개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는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매월 셋째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정하였다. '패밀리 데이'의 주요 내용은 바쁜 직장과 학업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 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관공서, 기업 등의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학교 및 학원의 야간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함이다. 또한, 복지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매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학습 및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병원 및 등·하교 등 장애아 양육지원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를 둔 부모와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로 예정된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맞물려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여부가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는 학

교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놀이' 때의 양육스트레스가 '갈등' 때보다 높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반대로 부모가 느끼는 불안, 우울, 개인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 혹은 행동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의 모습들

다음 내용에 당신이 해당되는지를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된 것이 여럿일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이들, 가족, 가사일,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열의가 줄었다.
- 외로움이 늘어났다.
- 반복적인 행동이나 나태한 행동이 많아졌다.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모습이 늘었다.
-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졌다.
- 말할 때 목소리가 커지거나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
- 자주 썩 소리를 지른다.
- 화를 참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다.
- 불안한 마음이 많다.
- 대화 도중에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기를 잘한다.
- 쉽게 놀란다.
- 신경질이 나거나 안절부절 하다.
- 갑작스럽게 화가 나거나 울음 터뜨리기도 한다.
- 지나친 흡연, 음주, 진정제나 약물 남용이 있다.
-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기, 혹은 아침에 일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계속적인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있다.
- 감기, 설사, 변비, 자주 소변보기 등 가벼운 질병이 자주 발생한다.
- 만성적인 두통이나 현기증이 있다.
- 건망 증세가 있다.
-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생겼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4

나중혜(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은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제안한 연구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짚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연구는 어머니 개인차원의 변인(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아버지와 연계된 변인(부부관계, 양육 참여), 사회적 변인(사회적 지원, 육아지원정책) 등 여러 차원의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연구결과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던 비취업모에 대한 지원 모색이 시도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취업모의 지원에 관한 고민은 있어 왔으나, 비취업모에 관한 정책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p.4)”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바쁜 취업모와는 달리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집에서만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자도 논의에서 “비취업모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느끼거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을 등을 경험할 수 있다. - 이것은 비취업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p.24).”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취업모에 대한 지원이란 곧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맞물린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설 중심 양육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각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보면 가족 단위보다 어머니라는 개별대상을 중심으로 육아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어머니의 기분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는 일본의 가정 양육지원 사업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육아상담을 해주거나, 보육사를 파견하여 어린 영아를 돌보아주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육아서클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 육아 원조를 받고 싶은 사람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패밀리 서포트센터, 0-3세 영아의 부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교류방 사업 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취업모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모의 경우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횟수가 많고,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실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관련 변인을 알아본 결과 직장에서 실시하는 지원 정책의 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제로 취업모가 이용한 정책의 수가 많고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p.18-19)는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취업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직장마다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및 육아휴가 제도를 필수적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복귀가 어렵고 직장에서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는 취업모들의 우려도 버젓이 있는 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밖에서 일하여 얻는 성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여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 혼자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육아지원 정책은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육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일 중 선택할 수 있는 공평한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일이 같은 시간 밖에서 하는 사회활동만큼 경제적

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회가 인정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하여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머니들이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시사합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변인을 알아본 결과 도구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보적 지원 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p.18-19)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우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여 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앞다투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시된 정책들은 셋째(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금, 셋째 자녀 보육료 면제 등 주로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들일 뿐 정작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향후 육아지원 정책은 금전적인 도움보다 어머니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양육을 주로 어머니의 몫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호주는 가족과 관련하여 1910년대부터 모성수당, 출산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1960년대부터 가족관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발 빠른 정책대응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가족지원정책은 크게 소득지원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당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이라면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가족관계 서비스 프로그램(FRSP: Family Relationship Services Program)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관계 상담, 가족관계 중재, 자녀접촉서비스, 가족관계 교육, 가족관계기술훈련, 성인 가족관계 중재 등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양육에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체계에 더하여 정서적인 지원 체계로 눈을 돌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비취업모, 취업모, 전체 어머니 관련하여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한 토론을 마치면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후속 연구의 등장을 기대합니다.